

근로계약서 변경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재우원회 투쟁수칙

4월 28일 우리나라에서도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한 촛불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국회 앞에서 추모제가 개최되었고,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곁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노동자를 기억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공원에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추모제를 개최(Herald Sun 신문)했고,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 정부청사에 조기(弔旗)가 걸리고, 주 노동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 "노동현장의 모든 주체들은 재해와 죽음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CBC 뉴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들이 돌아가신 노동자들에게 묵념과 추모 사이렌을 울리고, 행진을 하며, 꽃을 바쳤고(PersonnelToday 신문), 영국 BBC 뉴스는 사업주를 기업살인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데 오래 걸릴수록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가나, 홍콩 등 전 세계 70여 개 국에서 추모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릴 것이며, 추모제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회에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해 **알고 싸움시다** 기획연재 3 - 산재보험 민영화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지난 소식지를 통해 산재보험을 둘러싼 경총의 노림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총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산재보험 민영화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민영화란 무엇인가요 ???

민영화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보험 회사들이 산재보험을 상품으로 개발한 후, 개별 기업이 어떤 보험회사에 산재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삼성생명이나 동부화재 보험 같은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취급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회사는 어떤 보험에 들까요? 일단 보험료가 싼 곳을 찾겠죠.

2. 왜 하필 산재보험 ???

우리나라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본가들은 4대 보험을 없애버리자는 말은 차마 못하고, 모두 민영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산재보험만 자꾸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재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산재보험일까요?

첫째, 다른 보험은 전체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국민 여론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민영화요인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공보험은 보험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개별실적 요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이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는 유인책이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산재보험의 재정은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갈의 위기가 있

고, 이 때문에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집행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이 세가지 이유 때문에 자본은 산재보험부터 민영화하자고 작정하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영화가 되면 안좋은가요 ???

그렇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안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부터 한 번 봅시다.

구분	산재보험(사회보험)	사보험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 가입
보험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위험정도와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보험급여	최소생계의 보장을 위한 급여	보험료에 비례한 부과
운영목표	사회보장(공공성)	이윤추구(사적 이해)

결국, 민영화가 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이윤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윤을 내는 방식은 “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산재보험료를 많이 걷는 대신에 산재보상은 적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고객 유치에 위해 보험료를 무작정 올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지출을 줄입니다. 게다가 사업주들은 보험료는 자기가 내고, 혜택은 노동자들이 보는 것이므로, 보험료가 낮으면 되지 혜택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보상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광고비와 운영비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조금 오래 되었지만 1995년 자료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운영비가 보험료 총수입의 4 %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사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22.8 %입니다. 운영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그만큼 줄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걷은 것 중에서 97.4 %가 산재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64.8 % 밖에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고위험 업종은 사보험체계에서는 불량물건이 되어 보험가입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불량물건이란 보험료를 계속 지급해줄 일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열악한 사업장, 영세사업장입니다. 가뜰이나 열악한 곳이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산재보험의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조건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투쟁소식

■ 5월 14일 광주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모입니다.



4월 29일 노동보건연대와 민중행동 회원들이 광주의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버스노동자 최00씨 산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졸

속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일 근로복지공단 담당 보상차장으로부터 재심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지만, 다시 5월 2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5.18 행사를 앞두고 많은 동지들이 5월 14일에 광주로 집결할 계획입니다. 동지여러분 ! 광주로 오시면서 근로복지공단의 농성장에 결함을 안하신다면 그건 배신이지요? ^^

■ 화학섬유연맹, 여수산단 유해물질 본격적 문제제기

노동과건강포럼2005 제2주제 포럼이 지난 4월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산단의 정유, 화학 산업 노동자들이 단시간 동안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수산단에서는 혈액암이나 림프종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1996년부터 여수산단의 위험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노동부의 조사에서 조사 문제를 덮어두고 쉬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학섬유연맹 소속 여수산단 노동조합들은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으로 운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